



수도권

은행나무

## 용문사의 가지 깎어다 심은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23-2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5-8
지정년도	1968	37° 30' 01.84" N
관리기관	서울	127° 03' 46.88" E
수령	540년	
수고	22m	
흉고둘레	5.1m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있는 보호수(서23-2) 은행나무는 은마아파트 단지 뒤편 구역의 주택가 길 옆에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54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2m, 가슴높이둘레는 510cm, 밑동둘레는 6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6m 가량이다. 원줄기는 위로 올라갔으나 높이 2.5m 정도에서 가지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으며, 다시 가지를 내어 풍성하게 나무갓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은행나무는 3갈래의 도로변에 사람키 이상의 높이로 자연석을 쌓고 데크를 만들어 놓았다. 은행나무 앞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하는 영산단이 놓여있고, 기념비 및 예전에 큰 고개가 있었다는 한티마을을 소개하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벤치도 놓여 있어 쉼터의 역할도 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제를 지내는 신목과 관련이 있다. 현재 대치동 자리의 옛날 구마일에 살던 한 할머니가 용문산의 용문사에 치성드리러 갔다. 그후에 할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용문사의 은행나무 가지(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꿨었다. 이 가지는 싹이 트고 잘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기하게 여겨 매년 이 은행나무에 제를 올렸는데,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불구자도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은행나무를 동신으로 수호하게 되었다. 은행나무 옆에는 '영산단(靈山壇)'을 알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지금도 매년 음력 7월 초하루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 은행나무 아래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은행나무가 재해를 없애주고 악귀를 멀리 쫓아 상업을 융성하게 해주며 농가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고 있다. 제관은 60세 이상으로 부정이 없는 사람을 선정한다. 2017년 서울시가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를 위하여 대치동의 구마일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구마일에 살던 주민들이 기억을 더듬어 옛 마을 지도를 그렸는데, 기억의 중심이 되는 지형지물은 언제나 커다란 은행나무이었다. 예전 농촌마을 시절의 구마일에서 살았던 주민들에게 대치동 은행나무는 고향의 흔적이었다.